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11월 13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 기 술 원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성산에서 키운 골드키위 '감황', 10월 본격 수확-p9(2026.11.01.)	동부농업기술센터	월간 새농사
○	제주, 복합파종·자동조향으로 노동력 88% 절감-A14(2026.11.02.)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축산 기계신문
○	제주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농산물 마케팅 교육생 모집-8면(2026.11.02.)	제주농업기술센터	한국영농 신문
○	제주 나물콩 신품종 '해찬' 보급 박차-4면(2026.11.09.)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신문
○	떼어먹는 스낵파인애플, 새 소득작목 키운다-5면(2026.11.09.)	과수연구과	농업인 신문
○	농업기술원·서귀산과고 업무협약-10면(2026.11.11.)	기술지원조정과	서귀포 신문
○	제주농업생태원서 제주감귤박람회 개막-3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감귤은 제주인의 삶이고 문화… '종합 감귤산업 축제'-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 교육-13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삼성여고 4-H회 '데메테르', 하효경로당에 물품 기부-14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삼다일보
○	농촌지도자제주시구좌읍회 생필품 전달-13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서부농업기술센터 역량강화 교육-13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독자기고] 제주농업, 위기 너머 희망을 심다-15면(이미숙)	제주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10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8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2026제주감귤박람회 개최-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감귤 수확에 '구슬땀'-1면	-	제주일보
○	주말 하늘 '요란' …비바람에 천둥까지-1면	-	제민일보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 감귤, 국내 최초 우즈벡 진출-6면	-	제주매일
○	제주 농가 부채 전국 1위…위 지사 “농산물 제값 받기 최선”-2면	-	삼다일보
○	양파 모종 심기, 부지런한 손길-3면	-	한라일보

(월간새농사: 2026년 11월 1일)

○ 성산에서 키운 골드키위 '감황', 10월 본격 수확-p9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미)는 성산키위특화단지에서 생산한 '감황' 키위를 10월 상순부터 본격 수확한다고 10월 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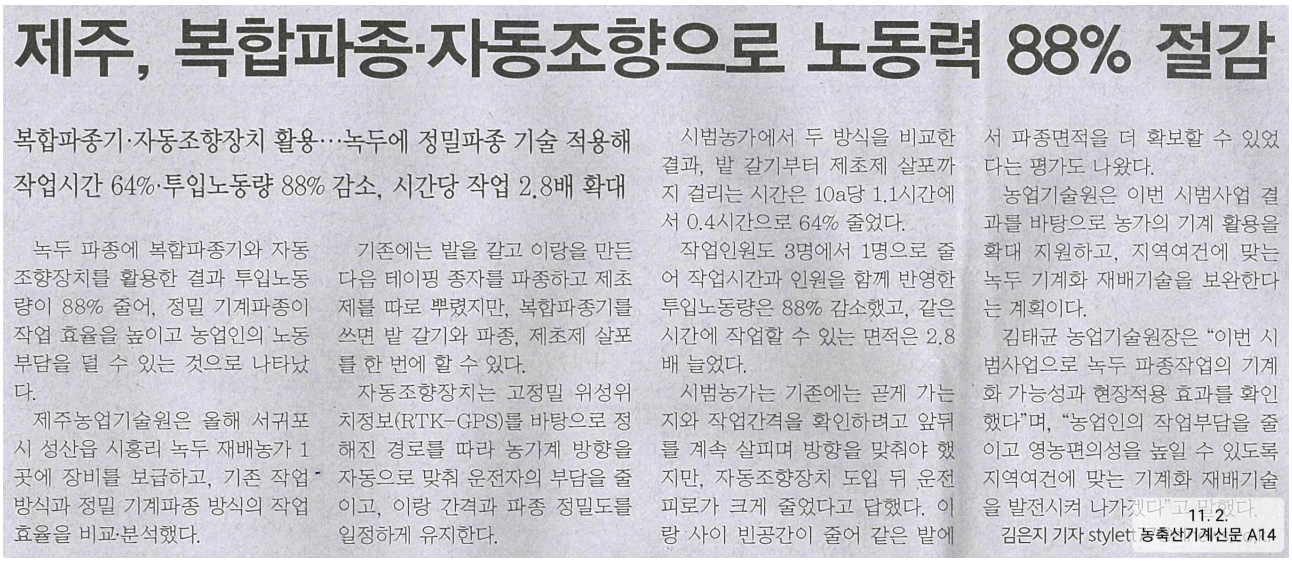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감황'은 과실이 크고 당도가 높으며 과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부드럽다. 올해는 30개 농가가 11㏊에서 300톤가량을 생산한다. 수확한 '감황'은 성산일출봉농협을 통해 10월 하순부터 전국에 공급할 예정이다.

센터는 안정적인 생산을 뒷받침하려 ▲키위 꽃가루 생산 기반 조성 ▲우량묘목 보급 ▲꽃가루 발아율 검사 ▲과실 건물률·당도 분석 ▲현장 상담과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월간새농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11월호 9

(농축산기계신문: 2026년 11월 2일)

○ 제주, 복합파종・자동조향으로 노동력 88% 절감-A14



제주, 복합파종·자동조향으로 노동력 88% 절감

복합파종기·자동조향장치 활용…녹두에 정밀파종 기술 적용해

작업시간 64%·투입노동량 88% 감소, 시간당 작업 2.8배 확대

녹두 파종에 복합파종기와 자동조향장치를 활용한 결과 투입노동량이 88% 줄어, 정밀 기계파종이 작업 효율을 높이고 농업인의 노동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올해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녹두 재배농가 1곳에 장비를 보급하고, 기존 작업방식과 정밀 기계파종 방식의 작업효율을 비교·분석했다.

기존에는 밭을 갈고 이랑을 만든 다음 테이핑 종자를 파종하고 제초제를 따로 뿌렸지만, 복합파종기를 쓰면 밭 갈기와 파종, 제초제 살포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자동조향장치는 고정밀 위성위치정보(RTK-GPS)를 바탕으로 정해진 경로를 따라 농기계 방향을 자동으로 맞춰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랑 간격과 파종 정밀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시범농가에서 두 방식을 비교한 결과, 밭 갈기부터 제초제 살포까지 걸리는 시간은 10a당 1.1시간에서 0.4시간으로 64% 줄었다.

작업인원도 3명에서 1명으로 줄어 작업시간과 인원을 함께 반영한 투입노동량은 88% 감소했고, 같은 시간에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은 2.8배 늘었다.

시범농가는 기존에는 곧게 가는지와 작업간격을 확인하려고 앞뒤를 계속 살피며 방향을 맞춰야 했지만, 자동조향장치 도입 뒤 운전피로가 크게 줄었다고 답했다. 이랑 사이 빈공간이 줄어 같은 밭에서 파종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의 기계 활용을 확대 지원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녹두 기계화 재배기술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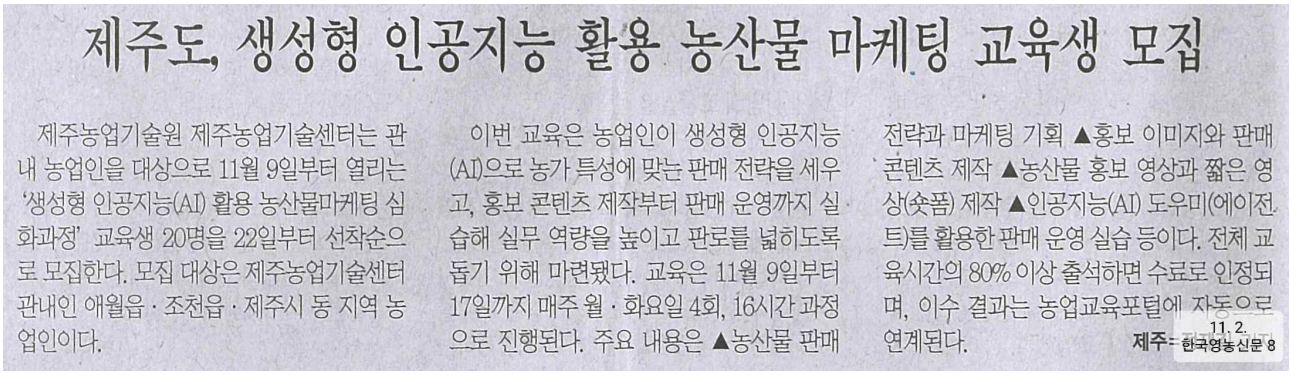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녹두 파종작업의 기계화 가능성과 현장적용 효과를 확인했다"며, "농업인의 작업부담을 줄이고 영농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여건에 맞는 기계화 재배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

11. 2. 농축산기계신문 A14

(한국영농신문: 2026년 11월 2일)

○ 제주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농산물 마케팅 교육생 모집-8면



제주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농산물 마케팅 교육생 모집

제주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11월 9일부터 열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농산물마케팅 심화과정' 교육생 20명을 22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제주농업기술센터 관내인 애월읍 · 조천읍 · 제주시 동 지역 농업인이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농가 특성에 맞는 판매 전략을 세우고, 홍보 콘텐츠 제작부터 판매 운영까지 실습해 실무 역량을 높이고 판로를 넓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매주 월 · 화요일 4회, 16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판매 전략과 마케팅 기획 ▲홍보 이미지와 판매 콘텐츠 제작 ▲농산물 홍보 영상과 짧은 영상(숏폼) 제작 ▲인공지능(AI) 도우미(에이전트)를 활용한 판매 운영 실습 등이다.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하면 수료로 인정되며, 이수 결과는 농업교육포털에 자동으로 연계된다.

제주=

11. 2. 한국영농신문 8

(농업인신문: 2026년 11월 9일)

○ 제주 나물콩 신품종 ‘해찬’ 보급 박차-4면

제주 나물콩 신품종 ‘해찬’ 보급 박차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안덕농협, 풀무원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농가 시범 재배지에서 제주 나물용 콩 신품종 ‘해찬’ 현장 평가 및 콤바인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는 고온 건조 기상에서도 제주 나물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과 조속한 종자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제주 시험 재배지를 설치, 기후변화 대응 나물용 콩 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 개발된 해찬은 100알 무게가 11.7g인 황색 소립 품종으로, 10a당 수량이 361kg에 달하는 다수성 나물용 콩 품종이다. 꼬투리 달리는 위치가 높고 쓰러짐과 꼬투리 터짐에 강해 콤바인 기계수확 적응성이 뛰어나다. 성숙기가 10월 11일로 기존 품종 풍산나물콩과 비슷해 동계작물과의 이어짓기에 유리하고, 내병성이 향상돼 등숙 및 재배 안정성이 우수하다.



나물콩 신품종 해찬

국립식량과학원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파종기, 승용관리기 등 생력화 기계와 종자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해 해찬이 안정적으로 재배,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해찬은 기계수확 적응성과 가공 품질이 뛰어나 제주 나물콩 재배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내재해성과 재배 성능이 향상된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주 나물콩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성낙중 khan101@nongupin.co.kr

11. 9.
농업인신문 4

(농업인신문: 2026년 11월 9일)

○ 떼어먹는 스낵파인애플, 새 소득작목 키운다-5면

떼어먹는 스낵파인애플, 새 소득작목 키운다

제주농기원, 2028년 농가 보급 목표

제주농업기술원이 떼어먹는 아열대 과수 '스낵파인애플'을 새 소득작목으로 키우기 위해 2028년 농가 보급을 목표로 재배기술 확립에 나섰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스낵파인애플(품종명 대농4호)을 들여와 시범 재배한 결과, 일반 파인애플에 견줘 소득이 23% 높고, 소비자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86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주의 아열대 과수 재배면적은 87헥타르로, 우리나라 전체의 38.3% 비중으로 전국 1위다.

제주도의 경우 재배면적은 2010년 41헥타르에서 2018년 56.6헥타르, 2022년 58.4%, 올해 87헥타르로 늘었는데, 전체의 4분의 3인 64.8헥타르가 망고에 몰려 있기에 재배작목 다양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낵파인애플은 과육을 손쉽게 떼어먹을 수 있고 가운데 심까지 먹을 수 있어 일반 파인애플과 다른 상품성을 갖췄다. 일본 오키나와 대표 특산품으로 한국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높다. 시험재배 결과, 과실 평균 무게는 837.5그램, 당도는 14.6브릭스였다. 10아르(약 300평)당 예상 소득은 약 1514만 원으로, 국내산 일반 파인애플 1226만 원에 견줘 23% 많았다.



농업기술원은 9월 두 차례 평가회를 열어 제주도 안팎 소비자 51명을 대상으로 수입 파인애플에 견줘 외관, 과실 품질, 상품성 등 16개 항목의 만족도를 조사했다.

종합만족도는 86점이었다. 특히 △과피와 과육 색깔 △먹기 편한 정도 △관광상품 적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농업기술원은 2027년부터 재배기술 확립과 보급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과실 크기와 당도를 높이는 기술, 눈이나 새순을 활용해 번식·재배 기간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 보급용 재배지침서를 만들 계획이다.

백종수 bjsoo@nongupin.co.kr



제주농업기술원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스낵파인애플을 새 소득작목으로 키우고 2028년 농가에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11. 9.
농업인신문 5

(서귀포신문: 2026년 11월 11일)

○ 농업기술원·서귀산과고 업무협약-10면



농업기술원·서귀산과고 업무협약

제주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교장 김성태)은 지난 6일 제주도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지능형 농업(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미래농업 인재 양성 및 농업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 11.
서귀포신문 10

(제민일보: 2026년 11월 13일)

○ 제주농업생태원서 제주감귤박람회 개막-3면

제주농업생태원서 제주감귤박람회 개막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 제주감귤박람회'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농업생태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박람회는 '감귤을 품은 제주! 미래를 여는 감귤!'을 주제로 19일 거리 퍼레이드와 함께 막을 올린다.

행사장에서는 감귤산업관, 우수 감귤 전시관, 농기계·농자재 전시관, 농식품 홍보관, 감귤 직거래 판매장, 제주 농특산물 판매관 등을 통해 감귤산업 전시와 기술교육, 유통상담, 문화·체험 행사가 진행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관계자, 관광객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우선 대한민국 감귤관에서는 국내 육성 품종 200여점과 감귤 품평회 수상작 등을 선보이며 제주 감귤의 품질과 품종 다양성을 알린다.

감귤 재배농가를 위한 전문교육과 세미나를 비롯해 국내 유통기업과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상담회와 비즈니스 매칭도 진행된다.

관람객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감귤 수확 체험, 감귤디저트 대회, 어린이 감귤 사생대회, 귤빛가요제 등이 열리며, 제주 전통장류 부정선 장인과 함께하는 감귤장 만들기와 과자 키트 체험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감귤 캐릭터 포토존, 문화예술 공연, 버스킹, 감귤 풀장에서 행운의 보물을 찾는 '감귤왓'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김두현 기자

11.13
제민일보 3

(제주매일: 2026년 11월 13일)

○ 감귤은 제주인의 삶이고 문화… ‘종합 감귤산업 축제’ -9면

감귤은 제주인의 삶이고 문화…‘종합 감귤산업 축제’

‘2026 제주감귤박람회’ D-7 현장 찾아보니

국내 최대 감귤박람회인 ‘2026 제주감귤박람회’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생태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축제에 앞서 12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찾았다.

농업기술센터 정문 앞에 마련된 농기자재전시존에는 참가업체들을 위한 부스가 한창 설치 중이었다. 지난해 총 175개였던 부스가 올해는 210개로 늘어 관람객들이 감귤 직거래 장터를 비롯해 새로운 농기자재, 품평회 수상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감귤은 제주인의 삶이고 문화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농산물 전시·판매를 넘어 감귤 생산부터 유통·가공·6차산업, 첨단기자재와 국제학술 교류까지 아우르는 종합 감귤산업 축제로 마련된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6만3000여명의 관람객이 참석했다. 올해는 그보다 많은 6만5000여명이 박람회를 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참가부스 설치에 한창…6만5천명 관람객 대비 증설
행사 난제 주차문제 해결 위한 셔틀버스 확대 운영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고문삼 위원장은 올해 박람회에서 진행되는 ‘감귤왓’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고 위원장은 “작년에 젊은 부부 한쌍이 제주도로 여행을 와서 사흘 동안 이곳만 왔다고 하더라”며 “어린이가 감귤왓을 너무 좋아해 계속 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생생한 관람 후기를 전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관람객들의 가장 큰 호응을 이끌었던 대형 감귤풀장 ‘감귤왓’은 껍질을 벗긴 2t 규모 감귤로 가득 채워진 대형 체험 풀장이다. 참가자들은 온몸으로 감귤을 으깨는 감각 체험과 함께 감귤 속에 숨겨진 코인을 찾아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박람회에선 새로운 학술·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한국감귤아열대과수학회·아시아시트러스 명사 초청 강연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고품질 감귤 생산과 유통 토론회가 진행된다. 고 위원장은 “올해는 교육 프로그램도 시대에 맞는 걸로 준비했다”며 “몇 년간 최고 이슈였던 만감류 열과 피해에 대해 감귤학회에서 집중적으로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람회는 지난해 많은 관람객들로 인해 부족했던 주차 문제에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공천포 또는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등지에서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셔틀버스로 행사장을 오갈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6 제주감귤박람회 누리집(https://jicexpo.com)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 고문삼 위원장.

11. 13.
제주매일 9

(제민일보: 2026년 11월 13일)

○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 교육-13면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 교육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허영길)는 9일 센터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 희망 농업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성형AI활용 농산물마케팅 기초과정 교육'을 개강했다.

이번 과정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과 농산물의 온라인 홍보 및 판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1. 13.
제민일보 13

(삼다일보: 2026년 11월 13일)

○ 삼성여고 4-H회 ‘데메테르’, 하효경로당에 물품 기부-14면

삼성여고 4-H회 ‘데메테르’, 하효경로당에 물품 기부



삼성여자고등학교(교장 고성혁) 4-H회 ‘데메테르’는 지난 10일 하효경로당을 방문해 직접 만든 수제 비누 50개와 목공 타일 트레이, 라면 50묶음 등을 전달했다. 데메테르 강유리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변 이웃에 관심을 두고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11. 13.
삼다일보 14

(제민일보: 2026년 11월 13일)

○ 농촌지도자제주시구좌읍회 생필품 전달-13면



농촌지도자제주시구좌읍회 생필품 전달

㈜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구좌읍회(회장 임영애)는 최근 지역내 홀로 사는 어르신 30여가구를 대상으로 생필품과 농작업 안전용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회원들은 쌀 200kg, 꿩엿 10kg, 된장 10kg를 비롯해 화장지 등 생활필수품과 농작업 안전용품을 전달했다.

11. 13.
제민일보 13

(제민일보: 2026년 11월 13일)

○ 서부농업기술센터 역량강화 교육-13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역량강화 교육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강병수)는 10일 안덕면 생활개선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농산물인 마늘·양파를 활용한 발효 저장식품 가공 실습을 실시했다.

11. 13.
제민일보 13

(제민일보: 2026년 11월 13일)

○ [독자기고] 제주농업, 위기 너머 희망을 심다-15면

독자기고

제주농업, 위기 너머 희망을 심다



이 미 숙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과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겹치면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감귤을 비롯한 제주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제주에는 고유한 자연환경과 농업문화, 품질 좋은 농산물이 있다. 감귤은 제주 농업을 대표하며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도 담고 있다. 월동채소와 아열대 작목도 제주 농업의 성장 가능성을 넓힐 자산이다. 이들 농산물을 바탕으로 생산과 가공·유통, 체험·관광을 잇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키우면 농가가 소득을 얻을 길도 다양해진다.

스마트농업과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기상 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의 품질을 높여 제주산 브랜드의 가치를 키워야 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뿌리내리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농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는 한편, 농업인이 새 기술을 익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농업은 먹거리를 생산해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한다. 농촌에 사람이 남아 농사를 이어갈 때 제주의 자연과 농업문화도 다음 세대에 전해진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을 지켜 온 사람들의 수고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제주 농업의 희망은 농업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과 실천,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에서 시작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 힘을 모으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오늘의 땀이 내일의 풍요가 되고, 지금의 도전이 미래 제주 농업의 자랑이 되기를 기대한다.

11. 13.

<제주농업기술센터 인

제민일보 15

(제민일보: 2026년 11월 13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10면

- 무료입장 : 국가(독립)유공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른 등

□ 문의

-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2-3091)
-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7[illegible]

11. 13.
제민일보 10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

□ 추진개요

- 기간 :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 5일간
- 장소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 참가인원 : 6.5만명 내외
- 행사성격 : 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 주요프로그램

- 공식행사 : 개막식, 폐막식, 술 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 학술·비즈니스 : 감귤학회, 신품종 감귤 강연, 바이어상담회, 농업부분 온실가스감축사업 설명회, 라이브커머스
- 경연행사 : 청년농업인혁신사례발표, 어린이사생대회, 감귤디저트 경연
- 문화·공연 : 귤빛가요제, 열린무대, 귤빛버스킹
- 체험행사 : 감귤따기, 감귤청·잼 만들기,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감귤젠가 등
- 빅 이벤트 : “감귤왓! No.1 감귤을 찾아라” - 감귤품장 경품 체험

□ 입장권안내

- 현장구매 : 2000원
- 사전예약 및 제주도민 : 1000원

(제주매일: 2026년 11월 13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8면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

□ 추진개요

○ 기　간: 2026. 11. 19.(목) ~ 11. 23.(월) / 5일간

○ 장　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 참가인원: 6.5만 명 내외

○ 행사성격: 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 주요프로그램

○ 공식행사: 개막식, 폐막식, 술 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 학술·비즈니스: 감귤학회, 신품종 감귤 강연, 바이어상담회, 농업부분 온실가스감축사업 설명회, 라이브커머스

○ 경연행사: 청년농업인혁신사례발표, 어린이사생대회, 감귤디저트 경연

○ 문화·공연: 귤빛가요제, 열린무대, 귤빛버스킹

○ 체험행사: 감귤따기, 감귤청·잼 만들기,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감귤젠가 등

○ 빅 이벤트: "감귤왓! No.1 감귤을 찾아라" - 감귤품장 경품 체험

□ 입장권안내

○ 현장구매: 2,000원

○ 사전예약 및 제주도민: 1,000원

○ 무료입장: 국가(독립)유공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른 등

□ 문의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2-3091)

○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732-3380)

11. 13.
제주매일 8

(제주일보: 2026년 11월 13일)

○ 2026제주감귤박람회 개최-9면

▲2026제주감귤박람회 개최 △일시=11월 19일(목)~11월 23일(월) △장소=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

11. 13.
제주일보 9

(제주일보: 2026년 11월 13일)

○ 감귤 수확에 '구슬땀' -1면



11. 13.
제주일보 1

감귤 수확에 '구슬땀'

12일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한 감귤밭에서 농민들이 노랗게 익은 감귤을 수확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

(제민일보: 2026년 11월 13일)

○ 주말 하늘 '요란' …비바람에 천둥까지-1면

주말 하늘 '요란'…비바람에 천둥까지

13~15일 비, 최대 60㎜

이번 주말 제주에서는 바깥나들이 대신 집에서 쉬어가는 것도 좋겠다.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데다 토요일에는 천둥·번개에 돌풍까지 동반하면서 하늘이 제법 요란할 전망이다.

1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3일 늦은 오후부터 15일 아침까지 제주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illegible]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 3~6시부터 일부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다. 이번 비는 14일에도 이어지겠고 13일 늦은 오후부터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60㎜다.

특히 14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순간풍속은 초속 15m, 산지에는 초속 20m 안팎에 강한 바람이 불겠다.

15일에는 오전 6~9시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고 산간도로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5도, 낮 최고기온은 20~21도로 예상된다.

14일에는 아침 16~17도, 낮 20~22도, 15일에는 아침 15~16도, 낮 19~21도를 보이겠다. 해상에서도 궂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3~14일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며, 15일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1~2.5m로 일겠다.

기상청은 강한 비와 바람에 따른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조병관 기자

11. 13.
제민일보 1

(제주매일: 2026년 11월 13일)

○ 제주감귤, 국내 최초 우즈벡 진출-6면

제주 감귤, 국내 최초 우즈벡 진출

초도 수출 물량 2t…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국내 최초로 제주산 감귤이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된다.

제주시농협은 12일 농협 스마트APC에서 '우즈베키스탄 감귤 초도 수출 기념 상차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수출은 올해 3월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된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결실이다.

초도 수출 물량은 2t 가량에 약 3000달러 규모다. 수출 물량은 항공편으로 제주를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우즈[illegible]슈켄트에 도착하는 경로다. 운송 기간은 4~5일이다.

우즈베키스탄 대형 유통업체 Korzinka(까르징카), 성신엘앤피㈜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출 과정을 분담한다.

수출 검역단지로 지정된 제주시농협은 농가 육성과 생산·품질관리를 담당한다. 성신엘앤피㈜가 수출을 진행하고 Korzinka는 수입·유통을 맡는 구조다.

우즈베키스탄 첫 수출은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협은 '실크로드(Silk Road)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러시아·몽골·우즈베키스탄을 잇는 국가별 수출 거점과 현지 유통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제주 농산물의 유라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농협은 그동안 러시아와 몽골 시장을 대상으로 제주산 농산물 수출과 현지 유통·판촉 활동을 이어왔다. 우즈베키스탄 수출로 다양성을 더하게 됐다. 또한 감귤뿐만 아니라 만감류, 키위, 채소류 등으로 수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고봉주 조합장은 "이번 수출은 제주 농산물의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낸 뜻깊은 성과"라며 "수출을 위해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농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감사 기자

11. 13.
제주매일 6

(삼다일보: 2026년 11월 13일)

○ 제주 농가 부채 전국 1위…위 지사 “농산물 제값 받기 최선” -2면

제주 농가 부채 전국 1위…위 지사 “농산물 제값 받기 최선”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지역 농가 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과 관련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45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경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정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보면 농가 부채나 전반적으로 좋아진 부분[illegible]없다”며 “농가들이 소득이나 자산 또는 부채 경감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경쟁력을 키울 거는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주도 농가 부채는 전국 평균의 2배 정도”라며 “농가 부채가 줄어드느냐, 지속되느냐가 제주 농업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지속적으로 농업이 국가 경쟁이 되고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 지사는 “제주지역 농가 부채가 평균 9515만원으로 전국 1위인데, 사실 자산도 1위”라며 “농가 소득 자체는 1위이지만 부채가 많아서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고 답했다.

위 지사는 “민선 9기 농업 정책의 핵심적 방향은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며 “앞으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samdailbo.com

11. 13.
삼다일보 2

(한라일보: 2026년 11월 13일)

○ 양파 모종 심기, 부지런한 손길-3면



양파 모종 심기, 부지런한 손길 12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한 농경지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양파 모종을 심고 있다. 강희만기자